

“미래인재 양성 · 핵심성과 창출 주력”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9만9800여명에 교육훈련 기회 제공
4급이상 ‘고위공직자 마인드 셋’ 신설 · ‘시군 특성화 교육’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은 2025년 ‘기회의 전북,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본격적인 공무원 교육훈련에 돌입한다.

올해 교육대상은 9만9,819명(497과정 4,612기수)으로 이는 지난해 교육성과와 시군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 이중 집합교육은 8,819명(97과정 247기)이고, 사이버교육은 9만1,000명(400과정 4,365기)이다.

2025년도 주요 교육과정의 목표는 먼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역량교육과 도정운영의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국·도정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정책’, ‘바이오와 방산산업의 이해’ 공직자 마인드셋 등 12개의 핵심가치 교육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전북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일반교양과정과 도민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공공?행정분야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실력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 위해 인공지능 역량강화 정보화·사이버 교육을 신설·확대 운영한다.

특히,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공직가치관 재정립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도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 공무원 공직자 마인드 셋’ 교육과

정(3기 110명)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 우수시책 및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시군 특성화 교육’도 올해 확대 시행한다.

도내 시군별 관광 및 문화적 특성, 전력산업별 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편성·운영하는 현장학습 교육과정으로 전년도 5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이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기회의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양성 목표로 2025년 교육훈련 계획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가 7일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서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세번째 회의를 열고, 남원시의 ‘추어푸드 생태계 구축’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남원 추어푸드 산업 ‘새 물결’ 일으킨다

동부권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전문가들의 협력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부권 식품산업 자문단’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남원시의 ‘추어푸드 생태계 구축’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지역농업네트워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충청농식품벤처창업센터 등 도내의 식품산업 전문가들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찾아가는 식품산업 자문단 회의’ 동부권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가 높은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자문단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남원의 대표

적 식품자원인 추어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을 활성화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자문단은 남원이 가진 지리적·산업적 강점을 활용해 추어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자문단과 관계자들은 남원시 주생면 사업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논의했다.

한편, 자문단은 올해 2월 동안 순창, 임실, 무주 등 동부권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미세먼지 · 오존 예경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경보 서비스를 기존 문자(SMS)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환해, 보다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대기환경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도민들은 미세먼지·오존 예경보 정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적 효과가 강화된 링크 버튼을 통해 상세한 대기환경 정보에도 즉시 접근 가능하다.

기존 문자 기반 예경보 서비스는 단문(8.6원/건), 장문(27.5원/건)의 발송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알림톡 도입으로 단·장문 관계없이 4.4원/건으로 운영 가능해 45~80%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알림톡은 발신 주체가 명확히 표기되어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공정보 제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초·중·고·대 10시 출근제 참여 사업장 모집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 간 110만원 지원
근로자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초·중·고·대 10시 출근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초·중·고·대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전북 소재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나 비영리법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고용 형태(기간제·대체·수습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1개소당 근로자 3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80명을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초·중·고·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무(오전 10시 출근 또는 오후 5시 퇴근)를 시행하며, 이를 이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40만원, 2개월 70만원, 3개월에는 1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obkkr)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기업성장팀(☎063-711-2035)으로 문의를 통해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마음 놓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친환경차 대중화 가속... 전기차 · 수소차 지원 물량 확대

전기차 8509대 · 수소차 600대 보급... 전기차 최대 1210만원 · 수소차 3450만원 보조

전북자치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총 2,182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8,509대, 수소차 60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도비 최대 630만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1,2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보조금 지원액이 10% 감액된 수준이지만, 보급 물량은 37% 증가한 5,350대로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가구(2명 이상)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도비 5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6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수소승용차는 도비 최대 600만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3,45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보급

물량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398대로 대폭 확대되어,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미세먼지 없는 전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전북자치도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을 새롭게 신설하고, 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한기(2~4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당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안전개발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2월(익산·정읍), (전주·군산) 2회 △3월(김제·완주) (진안·무주) 2회 △4월(남원·장수), (임실·순창), (고창·부안) 3회로 편성되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등 실질적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농협중앙회농업노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동등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법적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2025년 1학기

성인(리더자)의 필수!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자신감, 리더십, 시낭송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김양옥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도민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경위원장
- 한국스피치 · 용변협회 전북회장,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기업에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V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사회복지사
- 저서 '365스피치케어' '스피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김양옥 교수

〈전북특별자치도내 평생교육원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매주 1회 수업)	지역별(자유선택)
전주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금, 야간)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 스피치&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주, 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 주간)	익산, 김제, 논산, 강령, 무주
군산대학교(군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야간)	군산, 서천, 부안, 김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주, 고, 금)(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간)	정읍, 고창, 순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곡성, 구례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3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